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3월 5일(주일) 제1138호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



사진은 2017년 리더십 목양대회

교역자, 장로, 순장, 신임리더십 등 2천여 명 참석 개인, 순, 공동체, 교회가 “깨어있기를” 뜨겁게 기도

어제(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리더십 목양대회는 내 영혼이 깨어 있기를, 주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으로 깨어 있기를, 온누리교회가 청지기 공동체로 깨어있기를 간구하는 축복의 장이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맞이하고, 사모하게 해달라는 온누리교회 리더십 2천여 명의 기도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온누리 공동체 리더십 목양대회는

신임리더십 임명,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노규석 목사의 온누리M미션 사역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라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M미션을 섬기고 있는 노규

석 목사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선교를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노 목사는 “온누리M미션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권면했다.

2017 상반기 온누리공동체 목양대회에서는 신임리더십 784명이 세워졌다. 신임리더십은 다락방장 138명, 순장 412명, 대학청년부 MC 110명, 차세대 코치 124명이다. 배원상

다락방장, 오동현 순장(남 순장), 함유민 순장(여 순장), 강건 대학청년부 MC, 조재호 차세대 코치가 신임리더십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광원 신임 순장(수원 온누리교회)은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순원들을 섬기겠다”고 했고, 김찬영 신임 다락방장(영등포구로 공동체)은 “기도하는 다락방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혁 신임 MC(여호수아공동체)는 “더 많이 배우고, 은혜 누리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서빙고 22일, 양재 15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는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지하1층), 양재는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통합데스크나 개강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서빙고 3만원, 양재 5만원이다.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이기훈 목사의 성경 이야기,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의 ‘Well Living’ 세미나,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문성모 목사의 영성회복, 장태식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의 건강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122
양재 02-570-7311

3월 19일은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는 날

이웃, 환경, 지역경제 생각하는 캠페인

3월 19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매주 주일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이다.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가 이어지는 축제가기도 하다.

3월 19일에는 교회주차장이 이용이 제한된다.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서 교회까지 걸어와야 한다. 이촌역에서 서

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으로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온누리교회는 이웃을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라

“정말 멋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향순 성도와 정권일 형제의 눈물과 회복



아낌없는 사랑 받고 회복된 마향순 성도와 정권일 형제.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우울증 탓에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길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적도 여러 번이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걸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아들 권일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사랑채버 활동도 그만뒀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주중예배에 나갔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랑 덕분에였다. 이제 상처받은 모자(母子)의 마음에 뽀얀 새살이 돌아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이 어렵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잠도 편히 잘 수 없고, 밥도 편히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보내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남들보다 더 많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되고,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한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수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마향순 성도의 이야기다.

그녀는 재일교포와 결혼했었다. 결혼 10년 차에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생각지 않았던

이혼이었다. 한국말도 못하는 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숙제였다. 친정 엄마마저 오랜 시간 암 투병을 하느라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는 감사기도를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 설교를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다.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생이었고, 둘째 권일은 어린이집에 입학할 무렵이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딸을 학교에 보냈더니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둘째 권일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었다. 우울감에 빠져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별생각 없이 방문한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권일이 자폐성 장애 증상을 보인 것이다. 병원에서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복지관에 다니며 언어, 놀이, 음악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 말도 곧잘 하고, 읽고 쓰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일반 초등학교 특수반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문제는 마향순 성도에게 있었다. 우울증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한번은 권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커다란 SUV차량에 반쯤 덮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길에서 권일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지라고 아무

리 다짐해도 그 때뿐이었어요.”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다

권일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지인이 온누리교회를 소개시켜 줬다.

“권일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악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금세 배우더라고요. 또 사랑부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신앙을 회복했고요. 예배와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권일이 중학교에 진학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권일도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사위를 마치고 나온 권일의 온몸에 새빨간 자국이 가득했다.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이다. 너무 놀라 학교를 찾아갔다. 출산을 앞둔 특수학급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화가 났는데 마음 한쪽에서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디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권일이 이상행동을 시작했다. 낯선 공간에 있거나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과호흡을 하며 경기를 일으켰다.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도 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지하철에서 과호흡을 하며 온몸을 떠는 아들을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났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이후 생긴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랑채버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권일을 시설에 맡기라는 권유를 들을 정도였다.

“학교도 못가고, 사랑채버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권일이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울고 있는 아이, 화가 난 여자만 잔뜩 그리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거지요. 더군다나 치료비용이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비쌌어요.”

그 큰 사랑 덕분에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권일의 손을 잡고 수요일예배에 나갔다. 권일도 예배드릴 때만큼은 행복해했다.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다. 권일은 많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 같다고 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때 저와 권일이 정말 많이 회복되었어요. 정말 감동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순예배도 권일이랑 같이 갔어요. 다들 권일을 친자식같이 예뻐해 주셨어요.”

지난해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에 합창단이 생겼다.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권일도 합창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받은 큰 사랑 덕분에 이상행동도 상당히 호전됐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싫은 것도 참더라고요. 좋다는 교육도 많이 받고, 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진 적은 없었어요.”

모자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시간 날 때 다 손을 잡고 음악CD를 사러 다닌다. 합창부 활동을 시작하며 생긴 둘만의 취미다. 지난해 10월 강동 사랑부 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었다. 권일은 합창부 선생님과 함께 찬양 ‘어느 멋진 날에’를 듀엣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행동이 찾아와 무대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지나치게 긴장한 탓이었다.

“권일이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도 금방 힘을 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권일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이 회복되었어요. 요즘에는 밝은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 큰 사랑 덕분에 마향순 성도는 정말 멋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투성이예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올 때 한국말로 찬양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권일이 그 기도제목을 이루고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사회나 여러 형상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존재했지 현대 문명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우상을 좋은 단어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돌 스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 ‘Idol’을 멋진 단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는 오늘날 가장 성행하고 있는 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부르짖고 견고하다고 지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회정의보다 더 많이 지적했던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교훈했던 주된 내용은 ‘왜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그렇게 의지하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관하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화 한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 중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과 은 행계좌에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큰 근심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

이 계시지 않다는 말과 내 몸에 병이 있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큰 근심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큰 근심인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승진에서 실패했다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큰 근심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큰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결코 허용도 용서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고 섬기는 신을 닮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섬기는 신이 보잘것 없고, 하찮고,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우상이라면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 하찮은 것에 우리를 빼앗기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만약 부를 우상화하면 빈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을 우상화한다면 사회부적격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우상화한다면 힘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배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쉽니까 아니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 쉽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해를 없애고 15W짜리 전구를 갖다 놓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쟁자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태양을 전구로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

님 여호와께서는 살라 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23~24절).

현대인들은 “정직하게 살면 됐지” 또는 “착하게 살면 됐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라는 말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지 성경에 나타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은 독선적으로 여기고,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어주고, 인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을 베풀어주듯이 하나님을 믿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하도 믿으라고 하니깐 그래 믿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주는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어떤 경쟁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질투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근거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분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헌신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 주어지는 불행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숭배의 진정한 위험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흠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25~27절).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며, 망하게 할 것이고 엄청난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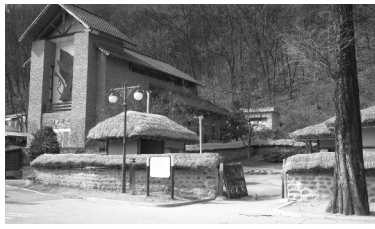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구들이 잘못된 욕망으로 변해버리고, 그것들이 우상을 만들 때 엄청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성취라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나의 업적이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남과 비교해서 앞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성취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신 권위와 권력이 타락한 권력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다리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기준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권력중독입니다.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밀함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중독을 ‘인정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변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인정에 굶주려 항상 분노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거절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대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기능들이 왜곡되어 버리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의 진정한 위험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위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13면에 계속)

우리가 잘 모르고, 잊고 있는 '3.1운동'

1. 3.1운동과 기독교
2.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유관순 열사 생가(오른쪽)와 매봉교회(왼쪽).



유관순 열사 동상.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서대문형무소.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

불꽃같이 살다간 영웅 ...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

98주기 삼일절을 보냈다.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대한의 자주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것이 바로 3.1만세운동이다.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인파 중에는 여고생도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가 ‘삼일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인’을 조사했는데 ‘유관순 열사’가 8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안중근 의사 9.2%, 3위 백범 김구 2.6% 순이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열이자 정신이다. 최근 그런 위인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관순 열사를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린 악질 선동꾼’이라고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할 유관순 열사를 재조명했다.

유관순 열사와 교회

유관순 열사는 청춘과 가족,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다. 19세에 순국한 너무나 아까운 위인이다. 유관순 열사가 여성독립운동가의 상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독교와 교회가 있다. 아주 큰 몫을 차지했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였고, 교회에서 장사를 치렀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1월 17일 충남 천안 용두리(지령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었다. 그녀의 생가 바로 옆에 지령리 감리교회(현 매봉교회)가 있다. 지령리에 기독교가 전파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을 제외하고 할아버지 유윤기, 삼촌 유중무, 오빠 유우석 등이 예수를 믿었다. 기독교는 지령리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관순을 비롯한 유우석, 사촌 유예도, 조병욱까지 모두 교회에서 신학문의 길을 소개받아 공부한 끝에 독립운동가 또는 정치가로 대성했다.

유관순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했다. 교회가 배움터이자 놀이터였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배우고, 어른들이 성경 읽는 것을 흉내 내다 한글을 깨쳤다. 읽거나 들은 성구들을 곧잘 외웠다.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교회 덕분이었다. 유 열사는 공주



유관순 열사의 수형자 기록표. 모진 고문에 얼굴이 통통 부어 있다.

영명학교를 1년 정도 다니다 1915년 이화학당으로 편입했는데 사프 선교사의 부인 사에리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사에리시 부인은 강경 만동여학교, 논산 영화여학교, 공주 원명서당을 건립할 정도로 교육선교에 열의를 불태웠던 인물이다. 특히 여성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충청도 지역을 순행하면서 각 교회의 똑똑한 여학생을 주목했다. 지령리교회에 온 사에리시 부인이 활발하고 총명한 유관순을 놓칠 리 없었다. 사에리시 부인의 천거로 유관순은 영명학교를 거쳐 이화학당 장학생으로 편입했다. 이곳에서 민족의식과 신앙심을 고취시켜 나갔다.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도 남다른 학생이었다. 모두가 잘 때 홀로 기도실에서 기도했고, 부지런히 일도 했다. 그렇게 번 돈은 학우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정동교회의 손정도 목사와 이화학당 박인덕 선생도 유관순 열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유관순 열사는 더 열렬한 믿음과 애국심을 소유하게 되었다. 손정도 목사는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설교로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유관순 열사도 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박인덕 선생은 3.1운동 당시 학생들을 선도했다는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유관순이 옥에 갇혀있을 때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유관순 열사가 죽은 지 16년이 되는 해 당시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신봉조에게 유관순 열

사의 일생을 소개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세운동과 옥중 투쟁 그리고 죽음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가 시작됐다. 이화학당 전교생이 소복을 입고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하고 만세대열에 합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학교측이 막아섰다.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문을 닫았다. 유관순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기숙사 뒷담을 넘어 파고다공원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 도처에서 3.1운동이 건장을 수 없이 일어나자 일제는 3월 10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리고 문을 닫게 했다.

고향으로 내려온 유관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주변에 알리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와 학교를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수십 리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위운동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만세시위에 쓸 태극기도 직접 만들어 배포했다. 천안 만세운동에서 유관순의 역할은 실로 대단했다.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3천여 군중이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시위에 놀란 일본군이 총칼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총칼에 쓰러졌는데 시위대 선두에 있던 유관순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유관순 열사의 눈앞에서 아버지 유중

권과 어머니 이씨를 잃고, 오빠 유우석과 삼촌 유중무는 체포되었다. 유관순도 도망다니다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제1심 공판이 열렸다. 유관순은 5년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유관순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당신네들이 내게 무슨 죄를 줄 권리가 있단 말이오. 나는 잃어버린 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투쟁한 당당한 애국소녀요.”

유관순 열사는 조금도 굽힘 없이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최고 형이 3년형이었는데 그와 비교해보면 중형을 언도받았다. 이에 항소한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형생활을 했다.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도 독립을 향한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다.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 옥중만세운동을 벌였다. 옥중만세운동에는 절도, 강도, 파렴치범, 사기범 등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들과 합세해 3,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시위 열기는 모하관, 냉천동, 애오개, 합동, 서소문 등 감옥 바깥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전차가 불통되고, 기마대가 출동할 정도였다. 이 옥중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된 유관순은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결국 방광이 터지고 말았다. 그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8일 옥중에서 사망했다. 사면날짜를 불과 4개월 여 앞둔 시점이였다. 19세 꽃다운 나이였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해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초라하게 치러졌다.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몇 명만 참석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다. 비석 하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제의 도시개발로 이태원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말았다.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 무덤이 파헤쳐져 다시 찾을 길이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를 가슴에 살아있다. 눈앞에서 일본군의 총칼에 부모가 죽는 것을 목격했고, 가정이 품비박산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몸으로 보여준 실천운동가였으며,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 누구도 유관순 열사를 폄하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3.1운동에 깃든 기독교 선조들의 순교정신도 같이 기억되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려움 넘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자!

수원 전교인 개강수련회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교회되기” 다짐

수원 온누리교회가 전교인 개강수련회에서 이웃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할 것을 다짐했다. 수원 온누리교회 전교인 개강수련회는 지난 1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실시됐다. 7년 만에 가진 전교인이 참석하는 행사는 말 그대로 성황을 이뤘다. 성도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 온누리교회 전교인 개강수련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수원 온누리교회 리더십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의 특강, 2부는 신임리더십 블레싱, 이상준 목사의 특강,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족사진 찍기, 차세대를 위한 소그룹활동, 세계관 강의 등도 이어졌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번 전교인 개강수련회의 목적은 더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수원 온누리교회 신기섭 담임목사는 “사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전교인 개강수련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상록 장로는 “전교인 개강수련회 장소를 Acts29 비전빌리지로 정한 이유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권면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어떤 이웃을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는 때는 지났다”면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인 이주민, 난민, 탈북자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황현희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겠다고 생각



▲ “환영합니다” 밝게 인사하는 스태프들.

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음식과 물건을 나누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고, 조인숙 권사는 “교회 리더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다”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신기섭 목사는 “수원 온누리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을 섬기는 것까지 지경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두려움 너머의 삶

2부 행사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상준 목

사(양재 온누리교회)가 ‘두려움 너머의 삶’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성도는 “항상 이웃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웃사랑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치현 성도는 “순원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호응도 좋았다. 정찬미 학생(파워웨이브)은 “새 학기에 적응을 잘



▲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 수련회가 새 학기 공포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 김은영 성도는 “올해 성경통독도 하고 다양한 사역도 해보려고 결심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전교인 개강수련회의 백미는 신임리더십을 위한 블레싱이었다. 이날 전교인 개강수련회에서 순장 21명과 다락방장 6명이 신임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신임순장 손기영 성도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순원들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 김영선, 조혜민 기자

기고

전교인 개강수련회를 맞이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 원래는 전교인 체육대회 겸한 수련회를 개최하려다 전교인 개강수련회로 방향을 바꿨다. 교회의 방향 변경에 잘 따라준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울부짖고, 돌이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살아나면 순이 살아나고, 순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난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난다.

이번 행사는 7년 만에 열린 전교인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공간이 부족해서 공동체를 나눠서 개강예배를 드리곤 있었는데 일찌감치

Acts29 비전빌리지를 예약을 해 둔 덕분에 좋은 장소에서 전교인 개강수련회를 할 수 있었다.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고 기도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산실인 Acts29 비전빌리지도 거닐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이상준 목사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나의 삶을 돌이켜 봤다. 은연중에 이주민, 난민, 탈북민들 전문가기관이나 선교기관에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에 프란시스코 목사님께 들었던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고,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 뿐”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복음에 빛진 자라면 반드시 난민, 이주민, 탈북민

을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새로 생긴 화성M센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한계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한계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역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사역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될 때도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과연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수십 년이 지나 우리는 2천1만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 사람의 꿈이 교회를 바꿨고, 한 교회의 변화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교인 개강수련회에서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품은 비전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지자 에스라가 포로생활에서 풀려나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원 온누리교회가 2017년을 시작하는 머릿돌을 아주 잘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교인 개강수련회를 시작으로 말로만 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이키고 살아나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 수원 온누리교회가 올 가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6명의 신임 다락방장과 21명의 신임 순장이 세워졌다. 지난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긴 열매들이다. 올 가을에는 더욱 많은 순과 다락방이 세워질 것 소망한다.



오상록 장로
(수원 온누리교회)

2017년 머릿돌을 아주 잘 놓았다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일까?

1. 세상(죄)으로부터 돌이킴
2. 초심으로 돌이킴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일까? 어떻게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을까? 황재명 목사가 성경 속 돌이킨 사람들을 통해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초심으로 돌이킴

신앙적, 소명적, 예배적, 관계적 초심으로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라기의 경고가 된다(말 4:6).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 그 돌이킴 중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쓰임 받았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있다. 크게 신앙적 초심, 소명적 초심, 예전적(예배적) 초심, 그리고 관계적 초심으로의 돌이킴이다.

야곱의 신앙적 초심으로 돌이킴

신앙적 초심으로의 돌이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고향집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을 성경은 ‘벧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우여곡절 세월을 보낸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많은 부를 쌓은 후 가나안으로 돌아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다. 세상적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공적 삶을 살고 있던 야곱은 어느 날 딸 다나의 강간사건과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복수극이 일어나자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벧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창 35:1). 이 명령은 ‘세상의 자리 세겜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의 집 벧엘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영적 각성을 의미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곱은 최악 된 세상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난 첫 신앙의 은혜를 망각하고, 영적 침체와 나태함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의 위기와 세상의 물질문화와 성공관에 빠져 믿음의 초심(벧엘)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최악 된 세상의 땅 세겜에서 돌이켜 벧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망각하고 있었던 그 정답을 다시 기억하게 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우상숭배와 세속문화의 죄악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 마침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 축복의 벧엘을 지금 ‘나’는 경험하고 있는지 되돌아야 한다.

요나의 소명적 초심으로 돌이킴

선지자 요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소명적 초

심으로 돌이킴’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이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들어 설명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표적으로 언급된 요나(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후 나온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 마 12:40)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세계 열방이었던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12만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를 단 하루 만에 회개시킨 능력의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요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하여 이를 거역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그 배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 숨어버리는 불충을 범하였다. 하나님을 피해 아래로

풍 속으로 스스로 던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마 12:4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명적 초심인 것이다.

예전적(예배적) 초심으로 돌이킴

예전적(예배적) 초심으로 돌이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론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 찬란한 영광에 도달했다. 이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점차 타락과 불충의 내리막길로 내닫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 다윗 시대를 황금시대로 이끌었던 여호와 숭배신앙은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으나,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인해 결국

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 속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킨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로의 돌이킴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진리는 시공(時空)을 뛰어넘어 현재도 계속 증거되고 있다

돌아온 탕자의 관계적 초심으로 돌이킴

복음서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비유’(눅 15:11~32)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적 초심으로 돌이킴만이 삶의 본질적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준다. 인류 역사 최고의 결작으로 찬사 받고 있는 미술작품 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1669년경)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제일 먼저 시선을 두는 곳이 한 노인이 헐벗은 거지 모습의 탕자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안겨있는 탕자, 그 탕자의 삭발된 머리, 해진 옷, 망가진 신발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되며, 그런 탕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 성경은 오늘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리고 지금 있는 죄악 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 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값없는 사랑을 누리 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한번쯤은 고민하는 질문들이 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과연 옳고 정답일까. 만약 인생 종착점에 도달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할까. 다시 돌아가 새로이 시작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감 속에 어느 길이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길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민에 성경은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다.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오늘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현 시국은 모든 한국 교회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1907년 평양대부흥 회개의 초심, 1973년 여의도 광장 기도의 초심으로 돌이키라고.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나와 내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기도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더 아래로 내려간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배 밀창보다 더 아래인 바다 아래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비로소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은 2:9)’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 고백도 잠시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자 심히 분개하여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부었다.

사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요나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한 요나를 다시 불러 소명적 초심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요나의 건성적인 순종을 사용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였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억지로’, ‘제멋대로’, ‘내 뜻대로’ 사역하는 우리 모습의 예표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요나를 통해 일어난 능력과 기적만을 보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거센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복음서는 그 폭풍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역사 위에 임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거부하고 이방 우상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최후는 패망이요, 이방 땅으로 유배당하는 치욕의 울부짖음이었다. 앗수르에 패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임으로 그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과 왕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유배의 고난을 겪었다. 그 아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예배함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유배생활 후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먼저 행한 것은 바로 전쟁과 폐허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던 것일까? 국가 경제 기반 또는 산업시설 재건보다 성전 재건에 우선순위를 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의 각성과 연단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과 갈급함이었다. 재건

이 청년을 아시나요?



“예수가 삶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랩퍼가 있어 화제다. 지난달 22일 ‘2017 가온차트 K-POP 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 힙합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랩퍼 비와이(이병윤, 25세)가 그 주인공이다. 힙합부문 수상자로 호명되자 무대에 오른 비와이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는데 오늘 그 꿈을 하나 이루고 내려가려고 한다”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읊었다.

지저스웨거 랩퍼 ‘비와이’
(Jesus Swag)

“내 삶의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자랑거리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비와이의 수상소감은 곧바로 화제가 되었다. 크리스천들은 비와이의 담대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넌크리스천들도 아낌없는 응원과 찬사를 보냈다.

비와이의 신앙고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와이의 랩에는 언제나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의 곡에는 예수, 말씀, 권능 같은 단어가 가득하다. 몇몇 곡을 제외한 모든 곡들이 기독교 색채를 띠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가사를 본다면 CCM인지 대중가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그의 곡 ‘forever’의 일부다.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건지 믿음으로 / 주님께 맡겼지.”

비와이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도 그는 신앙을 노래했다. 자극적인 가사 사이에서 신앙을 노래한 비와이의 곡이 큰 호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서바이벌 무대에서 매년 신앙을 담은 랩을 선보이는 비와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와이는 언제나 예수 일변도의 길을 걸었다. 탁월한 랩 실력과 신앙을 다룬 낯설지만 깊이 있는 가사가 비와이를 결승전까지 오르게 만들었다. 결승무대에서 부른 ‘자화상’이라는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아야.”

쇼미더머니5 우승 이후 예수 일변도를 걷는 비와이의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비와이의 인기도 급상승했다. 단숨에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비와이는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고, 멋이자 자랑”이라고 고백했다.

요즘 네티즌들은 비와이를 ‘지저스(Jesus)’와 ‘스웨그(Swag)’의 합성어인 ‘지저스웨거’라고 부른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비와이를 보면 없던 신앙심도 생기겠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다시 가야겠다”, “비와이의 랩을 듣고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반기독교 문화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비와이의 용기 있는 고백은 넌크리스천에게까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비와이를 보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한다. 비와이는 자신이 내뱉은 랩의 가사처럼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을 뿐이다. 비와이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랩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비와이를 본받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자.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요셉은 과연 비전의 사람이었는가?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마다 부푼 가슴과 설렘을 안고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어색하고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겠지요? 새 학급을 맡은 담임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1년 동안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예요. 그것이 문장이나 문구로 반영된 것이 급훈이예요. 제 눈을 한 번에 사로잡았던 급훈이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였어요. 꿈과 비전을 절묘하게 배합해서 만든 급훈인데 약간 섬뜩하지 않나요?

요즘처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덕담삼아 건네는 어른들의 인사는 진로와 직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꿈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정점에 ‘꿈의 사람,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공식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자녀들이 닮고 싶은 인물 1위가 되지 오래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겨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비전을 바라보며 꾀웃이 이겨냈고, 마침내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당시 선지자의 복식의 징표였고,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도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

라 형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자로서 수정하고 정정하기 위해 애쓴 것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세속적 지위를 쟁취하는 것이 되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고위직에 오른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곤 하지요. 요셉을 지명한 비전이 고작 세속 국가의 총리였을까요?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총리의 직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Friedrich Overbeck의 ‘팔려가는 요셉’.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창 45:5).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창 45:7-8).

이 말씀은 그가 왜 노예로 팔렸고, 우여곡

절을 겪으면서 이집트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열두 형제와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잘 보전되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예요.

50장에 나타난 요셉의 눈물은 왕궁을 숙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주시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창 50:17-19).

정당한 복수나 권선징악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이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악을 선으로 갚고, 형제들의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전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이집트의 총리 자리는 그 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거죠. 세속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이런 비전을 이집트 총리로 국한해요.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비전삼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 또 하나의 총리가 되라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요셉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훗날 “그리스도를 얻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골 3:8)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대한 시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갔던 ‘꿈쟁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답니다.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한동대학교 신축기숙사 ‘하용조관’ 개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 하용조관 전경.



▲ 하용조관 제막식.



▲ 하용조관 준공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신축기숙사 ‘하용조관’이 개관했다. 지난 2월 27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에서 준공예배 및 헌명식이 거행됐다. 기쁜 날인만큼 축하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서기 이철 장로 등 은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이철기 두란노서원 원장(하용조 목사 사모)과 하성석 형제(하용조 목사 장남),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명예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대학교 교수, 직원, 학부모, 학생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은누리 장로합창단은 특선으로 신축기숙사 하용조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한 신축기숙사 하용조관은 한동

대학교의 10번째 생활관이다. 2015년 8월 19일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1일 완공했다. 신축기숙사의 명칭을 ‘하용조관’으로 명명한 이유는 한동대학교 초대 이사장이자 한동대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하용조 목사를 기리자는 의미에서다.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이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은 “하용조 목사님은 한동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라며 “하용조 목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한동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한동대학교는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명과 용기로 품은 곳”이

라며 “은누리교회와 그 비전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하용조 목사의 장남 하성석 형제가 인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가치를 기억해주시어 영광스럽다”면서 “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명예총장)는 하용조관 개관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김 장로는 “하용조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하용조 목사의 섬김,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온 누리에서 섬기고 나누는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유화빈 학생은 “이곳을 이용하면서 하용조목사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대학교 관계자들은 신축기숙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목실장 최정훈 목사는 “하용조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하용조 목사의 섬김,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온 누리에서 섬기고 나누는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유화빈 학생은 “이곳을 이용하면서 하용조목사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한동대학교는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명과 용기로 품은 곳”이

/ 정현주, 김영선 기자

신축기숙사 하용조관은

신축기숙사 하용조관은 한동대학교에 설립된 10번째 생활관이다. 총 사업비 138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면적 8,464㎡,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모두 136실, 53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외에도 편의를 위한 세미나실, 기도실, 보건실, 커뮤니티 라운지, 편의점 등의 시설이 있다. 하용조 목사를 기념하는 곳이니만큼 기숙사 내부에는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 소개하는 작은 기념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 동판과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집필한 서적 등이 비치되어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주님, 당신의 발 앞에 앉는 것은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의 보좌입니다” 등 주옥같은 하용조 목사의 어록도 살펴볼 수 있다. 그곳에 가면 꽃가에서 하용조 목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한동대학교에서 온 편지

한동대학교 신축기숙사 ‘하용조관’ 준공예배를 은누리교회 가족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올해로 개교한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빠르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분들 중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한동대학교 설립 초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이사장으로 학교가 재정적인 곤란이 있을 때마다 지도력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재단기업의 사고로 개교가 불투명해졌었는데 개교 인가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의 부족

분을 후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재정 위기와 압박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굉장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많이 바꾸셨습니다. CGNTV, 두란노서원, 새로운 예배문화 등 세상 문화를 바꾸는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셨습니다. 선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저는 은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2천1만 비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비전을 따라 수많은 선교사와 평신도를 배출하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길러내셨고,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도 길러내셨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저자 이지선 자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자선

그 사랑과 가르침을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타교회 교인인 그녀를 찾아가 해외유학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외유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사람들은 말장의 동물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쉽게 잊고, 쉽게 잊혀집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하용조관을 이용하면서 한동대학교를 위해 수고한 하용조 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셨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세상에 전하는 자랑스러운 한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장순홍 총장 (한동대학교)



꼭 한번 가봐야 할 순례길 _포항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포항 기독교의 뿌리 괴동교회와 포항교회



▲ 포항 3.1운동을 이끈 포항교회(현 포항제일교회).



▲ 포항시 송라면 대전리에 있는 ‘대전 3.1의거기념관’.



▲ 자생적으로 생겨난 괴동교회(현 포항대성교회).

20세기 초 포항은 벽지(僻地)의 아주 작은 어촌이었다. 고기잡이나 염전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른다. 변변한 일거리가 많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하다보니 늘 미래가 불확실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용왕이나 신령을 그렇게 의지했을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포항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야말로 새 희망이자 진족의 등불이었다. 새 생명이 움트고, 비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세기 초 포항은 벽지(僻地)의 아주 작은 어촌이었다. 고기잡이나 염전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른다. 변변한 일거리가 많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하다보니 늘 미래가 불확실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용왕이나 신령을 그렇게 의지했을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포항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야말로 새 희망이자 진족의 등불이었다. 새 생명이 움트고, 비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흥회를 경험하고 교회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그 해 포항에도 부흥의 불길이 이어졌다. 1908년에는 고대하던 예배당을 마련하게 됐다. 교인들이 헌금한 30원으로 초가 3칸을 매입할 수 있었다. 사하는 것이 고달프고 괴로웠던 포항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은 생명의 소식일 수 밖에 없었다. 그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었다. 부흥을 경험한 끝에 1910년에는 초가 5칸으로 넓혔다.

민족계몽과 만세운동의 도화선

포항교회는 민족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한일 병탄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자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광복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으로 광복운동을 준비했다. 포항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1911년 남문오를 비롯한 포항교회 성도들은 민족계몽을 위해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흥학교를 설립했다. 학문을 깨우치는 일이 곧 민족계몽운동의 지름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들 낡은 학교로, 저너머에는 교회로 운영했다. 이곳에서 갈고, 닦고, 배우고, 익힌 이들이 1919년 포항 만세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19년 3월, 포항교회 송문수 장로, 영흥초등학교 교장 최경선 장로와 교사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3월 11일 독립만세운동을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군에게 탄압을 받았다. 곧바로 독립선언서와 인쇄물을 압수당했고, 주동자들이 구속됐다. 영흥학교 교장이었던 최경선은 8개월, 포항교회 장로 송문수는 6개월, 영흥학교 교사 장운환은 4개월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투옥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항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발발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당시 수백 명의 포항 시민들이 장터(죽도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불었다. 일본군들은 헌병대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지만 만세운동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포항교회 성

도들과 주민 수백 명이 교회에서 모여서 만세시위를 하러 시내에 나갔다. 다른 마을들도 합세했다. 그들이 영흥학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시위군중이 1천여 명이나 되었다.

포항의 3.1 만세운동은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다. 3월 22일 포항 청하와 송라면에서도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포항 대전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이루어졌다. 3월 22일에는 수백 명의 군중들이 합세했다.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포항시 청하면 일대에 울려 퍼졌다. 5일 후에는 대전리 주민들도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형을 살거나 가혹한 고문을 받고 옥사하기도 했다. 포항시 송라면 대전리는 지금도 ‘3.1 만세촌’ 또는 ‘만세마을’로 불린다. 그곳에 ‘대전 3.1의거기념관’이 있는데 항일운동 당시 사용했던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포항만세운동은 그칠지 모르고 계속 이어졌다. 4월 1일 포항 연일읍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오전, 대충 등지까지 확산되었다. 4월 2일에는 포항시 기계면 뒷산에 봉화가 오르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죽장, 상곡, 흥해 등지로 번져 나갔다. 당시 포항은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일본군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에도 3.1만세운동이 계속되었다. 포항교회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번져 나가 포항 영일지역에서만 9차례 시위를 했고, 참가인원이 2천 900명에 달했다. 사망자는 40명, 부상자는 380명, 피검자가 320명이었다. 포항 만세운동은 경북에서 대구 다음으로 크게 일어났다.

복음이 전파된 지 116년이 지난 지금 포항에 4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축복의 땅 끝에 한동대학교가 세워졌다. 믿음의 굳게 지킨 선조들의 기개를 이어받아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1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포항 대성교회와 제일교회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이어지는 길은 믿음의 선배들의 절개를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순례길이다.

포항선교의 선구자 박군현 성도

1901년 박군현 성도를 중심으로 부녀자와 어린이 27명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 자신의 집 사랑채가 예배당이었다. 바로 그곳에 포항의 첫 번째 예배당이 세워졌다.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 스스로 세운 자생적 교회였다. 그 교회가 바로 괴동교회(현 포항대성교회)다. 매주 주일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순회하며 예



삼성 홀리스타에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서초 홀리스타 시작!

남부터미널역 법무법인산지 지하 1층

내일(6일)부터 서초 홀리스타가 시작된다. 서초 홀리스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산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서초지역에 직장인들이 많은 것을 고려했다.

서초 홀리스타가 시작됨에 따라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강남이나 삼성 홀리스타에 참석하기 힘들었던 성도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 홀리스타는 여호수아 공동체와 SNS공동체가 연합해서 섬긴다. 서초 홀리스타 스태프로 섬

기고 싶은 청년은 아래의 문의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홀리스타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들의 새벽기도회다. 강남, 광화문, 대학로, 도곡, 마포,

명동, 분당, 사당, 삼성, 서초, 신촌, 여의도까지 총 12개의 홀리스타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타교회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문의: 김효정 팀장 010-7479-7077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홀리스타	요일 및 시간	장소
강남	월~금, 6:30	강남역(2호선) 10번 출구 파고다빌딩 11층 'Cafe Huh'
광화문	월~금, 6:30	광화문역(5호선) 6번 출구 풀바넷 코리아나 호텔점
대학로	월~금, 6:40	혜화역(4호선) 1번 출구 동숭아트센터 2층 사랑홀
도곡	월~금, 6:30	도곡역(3호선) 1번 출구 도곡교육관 A동 3층 기쁨홀
마포	월~금, 6:30	마포역(5호선) 2번 출구 방향 지하 1층 할리스 커피
명동	월~금, 6:30	명동역(4호선) 3번 출구 우측 100m 라무체웨딩홀 4층
분당	월~금, 6:30	서현역(분당선) 5번 출구 좌측으로 300m 비전월드 빌딩 1층 'CGV 서현' 1관
사당	월~금, 6:30	사당역(4호선) 4번 출구 직진 30m 우측 리메이메르 강남타운 2층
삼성	월~금, 6:40	삼성역(2호선) 5번 출구 직진 600m 카페빈 포스코사거리점 2층
서초	월~금, 6:30	남부터미널역(3호선) 4-1번 출구 법무법인산지 지하 1층
신촌	월~금, 6:50	신촌역(2호선) 1번 출구 직진 50m 올리브영 옆 '인디톡'
여의도	월~금, 6:33	셋강역(9호선) 2번 출구 이일렉스타워 4층 HES어학원

담대하게 나아가는 강동 온누리!

교회 창립 9주년 축하행사 개최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지난 주일(26일) 열렸다. 강동 온누리교회 연합찬양사역팀이 1부, 2부, 3부 예배에서 특순을 했고, 11층 로비에는 축하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됐다. 나상욱 장로, 권득한 장로 등 당회운영위

원과 캠퍼스운영위원회 장로들이 강동 온누리교회를 방문해 창립 9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홍주의 권사는 게시판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되자”는 메시지를 남겼고, 허영남 장로는 “창립 9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예

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현구 장로는 “청년들이 시작한 교회인 만큼 청년들 같이 넘치는 에너지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말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노치형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고”고 선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1회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개최

한국컴패션이 주최하는 ‘컴패션북한사역 제1회 파트너스 소사이어티’가 지난달 28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개최되었다. 컴패션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는 북한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기로 협약을 맺은 한국 교회 연합이다.

제1회 파트너스 소사이어티에는 지난해 파트너십 협약식에서 파트너십

을 체결한 76개 교회가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북한에 어린이센터 설립이 허가되는 날 센터를 세울 장소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온누리교회는 평양직할시가 선정됐다.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는 컴패션에서 실시하는 북한사역의 실질적 진행을 위한 주요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2-3668-3535

11기 이주민 선교학교 개강

온누리M미션에서 11기 이주민 선교학교를 개강한다. 이주민을 위한 예배를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장 101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3937-3927

어린이 일대일! 글로벌 일대일!

일대일사역위원회, 올해 주요사역 소개

일대일사역위원회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과 글로벌 일대일 제자양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일대일 사역팀 리더십 연합모임이 있었다. 이기훈 목사, 김영배 목사, 이한열 장로 등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일대일사역팀 리더십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훈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2017년 주요 사역으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과 글로벌 일대일 제자양육이 소개되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아버지 양육자반’이 4월 9일부터 2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일대일 제자양육은 ‘3기 글로벌 사역자반’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퍼스 일대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재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02-3215-3220

“민족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

대청 구국기도회, 청년 350여 명 참석



지난달 28일 대학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대학청년부가 주관한 구국기도회가 지난달 28일(화)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올랐다. 청년 350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 손은 들고 또 다른 손은 가슴에 얹고 뜨겁게 부르짖는 청년들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했다.

이날 구국기도회에서는 대학청년 부분부장 김승수 목사가 ‘기도, 부흥의 발화점(삼상 7:1~16)’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예배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면서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선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일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상희 형제(한사랑교회)는 “이번 구국기도회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2월 세레자

■서빙고

차해련 610727
최지옥 930512
황다혜 850626

입교

권현우 960317
이다은 950918

유아

김민하 150506
김환철 문지혜
김세연 151022
김택중 전해신
김주아 150916
김좌경 김하늘
김진 150417
김남형 임현수
김하루 150216
김주환 이미연
박하린 151016

박순기 강정선

안성윤 150508
안세훈 장미나
엘리아 160417

세르게이 노미현

윤하늘 160307
윤명석 송진숙
이봄 150311

이재학 김효정

조하이 150413
조태완 송지은
최민준 150304
최주현 정혜령

열린새신자예배

신준혁 880426
이보라 881022
입교
한수빈 880406

유아

오은섬 150211
오태성 김해경

■대학청년부

갈렘
정수민 860625
이인경 890711

요셉

김근영 851225
김세진 901009
이새미 870626

하늘

이정민 960322
김아라 970806
입교
김다윗 960825
임현우 960706

허브

김예원 971021
한다솔 961101
황규정 970331

입교

이상현 910410
신서윤 971216
이하영 940721

J4U

허단비 901020

Pole2

입교
김수진 980105

SNS

신윤정 880129
이다애 860902
정윤서 800207
조은희 920220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손충성, 송이레 선교사(중동A국)

이곳 교회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날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111 비전’을 선포했다. 100명의 성도들이, 10개의 셀을 만들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겠다는 비전이다. 그 결과 7개 셀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교회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알로 쿠키’다. ‘알로’는 전화를 받을 때 인사말인 ‘여보세요’이고, ‘쿠키’는 쿠티링 킵(성경)의 줄임말이다. 주중에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정해진 시간에 전화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이다. 성도들 중에는 집이 교회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주중모임을 교회나 집에서라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자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고안해 낸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파켓 세르비스(음식배달)’라고 이름을 붙였다. 성도들이 삶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짧게 녹음해서 나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인터넷으로 전달한다. 어떤 경우에는 찬

‘111 비전’

양을 녹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간증을 나누기도 한다. 혼자 녹음해서 보낼 때도 있고, 주중모임을 하다가 함께 녹음해서 보내기도 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

세 번째는 가끔씩 주일예배를 셀별로 하여 저 가정에서 드리고 있다. 교회를 제외하고 서너 군데에서 성도들이 직접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 누가 찬양인도를 할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식사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상의하고 준비한다. 성도들이 이 시간을 정말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예배인도나 말씀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섬기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10명 안팎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이 더 강해졌다. 올해 안으로 한 개 이상의 셀이 독립해서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 양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서동화 성도(과천의왕공동체)

진정 행복하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내 가방 안에는 늘 조그만 먹거리나 휴대용 휴지가 있다. 때로는 집에 있는 김치, 된장, 간장 등도 전도도구로 사용한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넬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내 안에는 존귀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어느 날 전도 간증 요청을 받고 천안에 갔다.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성도가 인사를 했다. 얼굴이 낮익었다. 알고 보니 전도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지와 교회신문을 가지고 1년 동안 방문해서 만난 자매였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천안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떤 분의 권유로 내가 간증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감사했다. 지금은 자신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도의 씨앗은 내가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기에 전도에는 실패가 없고, 많은 열매가 있더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우리는 전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시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기에 말씀을 붙잡고 전해야 한다.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을 주셨으니 찬양으로 힘을 얻고 전해야 한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빈 들과 광야에서도 함께해주시니 전해야 한다. 때로는 지쳐서 힘겨울 때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니 전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부어주시니 그 힘으로 전해야 한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기를 소원한다.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기쁨이 솟아난다. 내가 살아있고,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된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하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보기를 권한다.

■ 대학부 일본 아웃리치 간증



/ 이예원 자매(Pole2공동체)

그리고 그날

지난달 대학부 Pole2공동체가 일본 오이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 떠나기 전날 교회에 모여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짐을 꾸린 다음 쪽잠을 잤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가까스로 탑승할 수 있었다. 출발부터 설렘과 기대, 안도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비행기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오이타 사이키그리스도교회에 도착했다. 아담한 교회였다.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하얀 벽과 어두운 벽돌 지붕이 어우러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와 아이들이 반겨주셨다. 그 교회 본당에 들어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본당 무대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무대에서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한국어교실을 열었다. 아웃리치팀원 대부분이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함께 웃놀이를 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허

물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통했다.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해 본적 없다는 아소카와 씨가 우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집회에도 아소카와 씨를 초대했다. 아웃리치 셋째 날 집회에서 우리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소카와 씨가 직장 동료들도 데려왔기 때문이다. 위십과 스킷 드라마, 개인공연과 마지막 합창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공연을 마치고 놀라운 일이 또 있었다. 아소카와 씨가 데려온 동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다. 아소카와 씨도 많이 변화되었다. 다음날 주일예배와 이를 뒤 열린 성령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그날 아소카와 씨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순간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일본의 기독교인은 0.3%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도 교회 땅을 밟으면 저주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걱정과 편견에 휩싸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유영수 성도(한강공동체)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들

순장학교에 참석하면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없었다. 그냥 순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친다는 예수제자학교(JDS)를 이미 마쳤기에 순장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내년에 임직을 받으라는 다락방장님의 권면으로 순장학교에 신청했는데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임직을 2019년 예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의 2017년은 임직이 아닌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들을 순장학교에 예비해 두셨다. 순장학교에 참석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큐티를 제대로 하게 된 것이다. 피염피염하던 큐티를 이상준 목사님과 조호영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날마다 하게 되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하지 못하던 ‘큐티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한 순장학교를 담당하는 이해영 목사님과 간사님들의 섬김이 나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목사님이 몇 주 나오시다 나중에는 피염피염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목사님께서 한주도 빠짐없이 오셨다. 매주 오시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제가 담당목사잖아요”라며 당연한 걸 왜 묻냐는 표정을 지으셨다. 개강예배를 드리면서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균형 잡힌 순도임’에 대한 내용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순도임을 인도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웃리치에서 만난 베트남인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들의 순박한 얼굴과 웃음 짓던 표정, 15년째 그들을 묵묵히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 부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행 20:24).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며 복음에 빛진 자로서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다.

장로칼럼

마을 리더 7명이 달라졌다



박대호 장로
(안성CHE농장)

20개월 전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다. 당시 네팔 고레다라 마을은 구호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긴급구호를 위해 네팔을 방문한 온누리 NGO 더 멋진세상의 눈에 고레다라 마을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고레다라 마을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긴급구호 활동과 더불어 당장 들어가 살 곳이 없는 그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 공사를 지난 2월 12일 모두 마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CHE교육’도 실시했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었다. 마을 리더 19명 중에서 7명이 대상이었다.

그들은 긍정적이었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컸으며,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조금만 헤아리면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들 역시 그랬다. 고레다라 마을 남성들은 매우 의존적이고, 의지가 약하며,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편견이었다. 그동안 주인의식을 일깨워주면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도 주인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그들은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을 즐겼고, 자신과 이웃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개발정신을 구체적으로 심어주는 것이다. 개발은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총체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개발로 가는 길(필요와 자원)이다.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문제도 자원이 될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를 필요로, 필요를 자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들은 마을에 필요가 있는 만큼 자원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 고향에서 소득만 올릴 수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도 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과 양계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자연농업을 소개했다. 자연, 자립, 자치가 필요한 선교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연농업이다. 자연농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미생물을 활용한 방법이다. 그들에게 자연농업을 소개하자 당장이라도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척박해진 땅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한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CHE교육을 통해 마을 리더 7명이 달라졌다. 그들은 이 기쁨과 감동을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흥분했다. 안내하며 제대로 된 농사를 차근차근 배우겠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잘 전하고자 한다. 잘 전한다는 것은 영육을 통합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전하는 CHE를 만난 것이 다시 한 번 기쁘고 감사하다.

권사칼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



박경희 권사
(한뫼사역팀)

오래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혼자 놀던 자녀가 넘어져 상처가 났는데 치료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써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간증이었다. 그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선교사 자녀들과 현지 아이들을 위해 인형을 만들어 보냈다. 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면 밖에서 혼자 놀다가 다칠 일이 없을 것이고, 선교사님도 자녀 걱정 없이 사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선교지에 인형을 만들어 보낸 지 15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에는 인형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한뫼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은혜가 풍성했다. 뽀뽀뽀뽀한 글씨로 고맙다고 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다. 한뫼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짧은 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여진 때문에 아이의 생일 선물을 못 샀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어떻게 아셨어요?” 늘 하던 대로 인형을 보냈을 뿐이지 선교사님의 자녀 생일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밀한 예비하심에 감사하고, 놀라는 일이 정말 많다. 이외에도 “저희 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려서 매일 울기만 해요. 똑같은 인형을 하나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밤에 잘 때도 없어질까봐 고무줄로 몸에 감고 자요”, “작은 파우치에 일 년 양식을 만들 종자 씨앗을

담아놓아요”, “너무 아까워서 바로 못 쓰고 높은 곳에 올려놓아요” 등의 고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

인형을 보내야 할 선교지가 많다보니 일손이 부족했다.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 대부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은 매년 초에 모임을 갖고 물품과 수량을 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역을 완수하고 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열심과 정성으로 인형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도전 받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분들은 선교사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구촌의 불쌍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선교지 아이들에게 작은 정성과 사랑을 주고 있을 뿐이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지만 주님의 손에 드러졌을 때 큰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수년 동안 경험했다. 지구촌에는 우리보다 약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전쟁과 가난을 해결할 힘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전해 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심을 정말 많이 느낀다. 작년에는 60여 곳에 인형 2,300여 개를 보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감동과 은혜가 있는 섬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더 많은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문의: 010-4788-0560

신앙에세이



석승호 목사
(강동 차세대)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께 사랑과 축복을 전한다. 2017년을 시작하기 벌써 2개월이 지났다. 교회에서는 비교적 학년변화가 익숙하지만 학교에서는 조금 낯설다.

3월, 본격적으로 개학이 시작되었다. 지난 주일 만난 한 학년씩 진학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다. 군대에서도 가장 큰 징계가 소속 부대를 옮기는 것인데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새로 입학한 친구들은 어떨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을 것이다. 우리 가족도 새로운 3월을 맞이했다. 나는 교회학교 현장에서, 아들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딸과 아내는

공립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로 3월을 시작했다.

3월의 학교는 마치 전쟁터 같다. 우정을 쌓을 친구들과의 탐색전과 교사와 학생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 앞 심방’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겨울캠프에서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다짐들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3월을 맞이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첫째, 아침에 ‘일어나!’ 라고 소리치기보다 사랑이 담긴 스킨십으로 자녀를 깨우기를 바란다. 기상시간은 전쟁터이다. 5분 간격으로 울리는 알람과 “5분만 더”라고 외치는 자녀 사이에서 난감할 뿐이다. 어느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따뜻한 손길로 자녀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깨우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이 분명하다.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팔로, 이 다리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둘째,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기를 바란다. 마음상태를 살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표정, 어투,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보고 자녀의 현재 마음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때 절대로 잔소리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해보면 의사들은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환자 편에서 다른 증상이 없는지 묻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진찰을 한다. 아프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명의’이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돌팔이’가 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부모들을 명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권한다. 명령, 지시, 강요 대신 인정, 격려, 질문을 활용하면 된다. 덧붙여 맨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 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

앙을 그대로 배울 것이다.

셋째, 좋은 신앙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좋은 신앙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식사시간에 기도하기, 큐티하기, 학교에서 바른 언어 쓰기, 가정예배 드리기, 말씀 암송하기 등 아주 간단한 신앙습관부터 시작하면 된다. 자녀는 더 많이, 더 좋은 신앙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한다. 이때 학생들은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식사시간에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 해보기를 바란다. 일방통행의 큐티나눔이라도 자녀와 함께 시작해 보기를 권한다. 그것이 바른 언어, 바른 행동,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잊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29-31절).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요, 거룩한 질투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질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위험과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거스틴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세상은 너무나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 힘든 법일지라도 그 법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안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세상의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는 같은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5월에 한국에 오십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 세미나와 대학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하신 설교를 보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사역의 최종 목적은 피조물들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과 최상의 행복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시편에 관한 책을 보면 신앙 초기단계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표현과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자신만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최고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과 묵상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 거하

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본성과 목적이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시기에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하지 않는 만큼 우상이 들어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만큼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과 욕구들이 탐욕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행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우상이 만들어질 것이며, 우상으로 인하여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살아가는 것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찾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북한 주민 돕는 손길 멈춰서는 안 된다

미국의 기독교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을 섬기는 단체다. CFK는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의 한국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유진벨 선교사의 며느리다. 한국에서 남편 앤드류 린튼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1995년 북한을 돕기 위하여 CFK를 만들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다. 기근에 굶주렸고,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도왔다. 지금은 북한에 20여 개의 결핵센터, 감염센터, 소아 케어 센터를 섬기고 있다. 북한 각지에 세워진 센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각 지역 센터들의 특징에 따라 도와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망가지고 무너진 센터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돕기 시작한 결핵센터는 센터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황량했다. 20~50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그나마 문과 창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다. 문과 창문을 만들어 붙이고 지붕을 덮어 멸균한 건물로 만들었다. 한해 지나 다시 방문하면 멸균하던 지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면 다시 지붕을 덮어 튼튼한 센터를 만들었다. 홍수가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 다음은 환자와 의료진의 영양상태가 문제였다. 건강한 식재료와 깨끗한 물이 턱없이 부족했다. 수년간 결핵환자를 돌보던 한 원장이 결핵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CFK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건강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온실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온실에서 건강한 채소를 키워 환자와 의료진에게 건강한 음식을 공급했다. 깊은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도 했다.

어떤 센터는 멸균한 건물에 좋은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운용할 전력이 없었다. 그 센터에는 태양열 전력 공급 장치를 지원했다. 모

든 것을 갖춘 센터에는 정작 의료진이 부족했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한다면 환자들 간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 CFK는 전문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수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은 수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북한 의료진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공중위생부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의료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이 외에도 CFK가 하는 일이 정말 많다. 트랙터 공급, 영양제 공급, 의료 키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CFK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이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북한의 결핵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이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13만 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결핵을 앓고 있

을 것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웃 중에 결핵을 앓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결핵에 힘쓸 여력이 없다.

세계적인 대북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와 NGO들도 대북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제대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손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지고 있다.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북한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사랑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도와야 한다. 문의: 828-669-2355



하이드 린튼
(Christian Friends of Korea 사무총장)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7년 3월 5일(주일) | 제1138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람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쟁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2017 시니어아카데미 1학기 일시: 3월22일~6월 14일 매주 수 오후 2시 ~5시 대상: 65세이상의 성도 접수: 당일 접수 및 본관 로비 통합 데스크 문의: 02-3215-3122 스마트 사역팀 동역자 모집 모집: 스마트 누리꿈터팀(교육분야), IT선교팀(국내외) 대상: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IT 전공자나 종사자, IT에 관심있는 분 등 문의: onnurismart@gmail.com 온누리M센터(안산) Excel강의 재능기부자 모집 기간: 3월 18일~5월 13일 매주 토 오후 5시 ~6시 반 사역: Excel 기초 한국어 강의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시 원곡동 소재) 문의: 02-796-3217, swim@swim.org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뎸: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방: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8)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살름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한마음 회복예배 찬양리더사역자모집 일시: 매주 주일예배 11:20~ 13:20 트리니티304호 문의: 김상우 간사(02-570-7433) 한국어 선교학교 모집 일정: 3월 25일~5월 20일 매주 토 오후 5시 30분~8시 30분 자격: 와이미션수료(필수), 와이무슬림수료, 이주민선교학교수료(우선) 문의: 차춘근 팀장(010-3290-4506) 양재 온누리5분전도학교 모집 일시: 3월 12일~5월21일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신청: 아이스쿨 및 1층 로비 데스크 문의: 010-9001-6243
--	--	---	--	--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뎸(36개월~7세) 오전 09:00 꿈방(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복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뎸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뎸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방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방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워워브 오전 9:00 파워워워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인 천 O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컨벤시아 2층 볼룸) / 청년부 오후 2 시 113호 / 차세대예배 11시 30분 영아부 104호 / 유치 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 예배 오후 2시, 109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 대학부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이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이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워워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층 위더스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벤텔러를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른홀 파워워워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C

4월 7일(금) 오전 11시 첫 방송



강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신개념 특강쇼 나침반C

페이스북 라이브로 실시간 소통하며
다양한 패널들과 시청자가 함께 크리스천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갑니다.

MC 최윤영 아나운서

패널 임우현 목사, 나도움 목사, 정지민 개그우먼

3월 17일 찬양사역자 박종호 페이스북 라이브 예정

자세한 페이스북 라이브 일정은 나침반C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f 나침반C](https://www.facebook.com/cgntvcompassc) 검색 www.facebook.com/cgntvcompassc